

開業医를 爲한 X線 判誥法

「핀트겐」이 1895년에 X 선을 발견한 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의학에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896년에는 필름을 작게 만들어 구강내에 넣고 X 선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치과의학에의 활용에 첫 시도를 기하게 되었다.

현대 과학의 발전은 X 선기술분야에도 현저하게 기여하였으며, X 선필름의 高感度化 및 自動필름 現像器의 발달로 조작상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파노라마X 선 촬영술을 위시하여 각종 촬영장치와 더불어 컴퓨터화된 X 선TV가 치과임상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치과수술시 X 선사진은 다른 증상이나 임상적 소견과 함께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쓰인다. 그러나 진단은 항상 X 선사진 그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즉 부가적인 능력을 가진 행위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 및 치료에 있어서 X 선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증대되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다 정확한 지식과 깊은 이해가 자연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필름에 나타난 상(像 image)을 보고 병변을 찾아낸다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미세한 변화를 확실하게 판독하기 위해서는 우선 촬영방법 및 필름처리과정이 우수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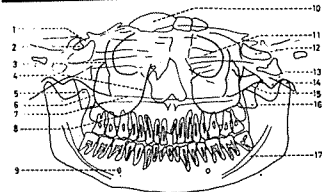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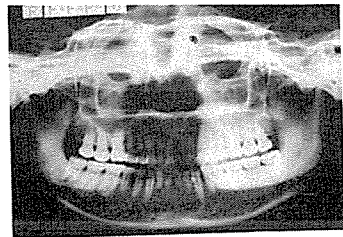
또한 X 선은 일상 우리가 감지(感知)할 수 없으면서도 인체에 유해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필름을 판독하는 임상적인 방법에 대한 요점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X 선사진상에서 유익하게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는 경조직의 상태,

치근단 병소, 잔존이물, 무증상인 잔존병소, 치아 지지골의 평가, 초기의 인접면 치아 우식증, 안면 및 악골의 성장상태, 하악관절의 변화, 안면골의 골절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파노라마X 선 사진이 통법의 전각 구내촬영에 대신하여 편리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 (사진 참조).

그러나 X 선사진은 그 나름대로의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 즉 질화의 어떤 변화된 단면만을 보여준다는 것, 특수한 수단을 쓰지 않고는 연조직을 관찰할 수 없다는 것, 입체적인 피사체를 평면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 기술적인면에서 볼때 피사체의 원형과는 어느정도 변화된 모양으로 촬영된다는 것등이다.

다음은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의 판독



- 1. Optic foramen.
- 2. Pterygoid fossa.
- 3. Panoramic innominate line.
- 4. Anteromedial wall of the maxillary sinus.
- 5. Coronal process.
- 6. Anteromedial wall of the maxillary sinus.
- 7. Floor of the nasal cavity.
- 8. Floor of the maxillary sinus.
- 9. Mental foramen.
- 10. Frontal sinus.
- 11. Orbit.
- 12. Sphenoidal sinus.
- 13. Sphenoidal air cell.
- 14. Head of the mandible.
- 15. Inferior margin of the zygoma.
- 16. Lateral pterygoid plate.
- 17. Mandibular canal.

정상적인 파노라마X 선 사진에서의 각 해부학적 구조물의 판독.

(호제동 62의 3호(종로 5가)로 이전 성업중입니다.)



서울치과기공소

SEOUL DENTAL LABORATORY

서울종로구호제동 62의 3 (서울빌딩 301호)

(763) 9370

(763) 8206 代表 徐 基 完